

영토와 영유권 분쟁 그리고 독도

22473805 추서현

목차

1. 독도 소개
2. 일본의 독도 강탈 과정
3. 독도의 날
4. 독도 둘러보기
5. 독도의 위치와 중요성
6. 독도에 대한 기록
7. 퀴즈
8. 일본과 독도

독도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있는 섬

독도의 위치!!!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 번지 지도

독도의 경위도!!!

동도(동경 131°52'10.4",북위 37°14'26.8"), 서도(동경 131°51'54.6",북위 37°14'30.6")

독도의 면적!!!

187,554m²(동도 73,297m², 서도 88,740m², 부속도 25,517m²)



삼국사기에는 512년 하슬라주의 군주 이사부가 울릉도를 중심으로 한 해상왕국 우산국을 정벌하면서, 독도가 우산도로 불렸다는 기록이 있으며, 1432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 우산과 무릉 두 섬은 날씨가 맑은 날 서로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1471년 삼봉도와 1794년 가지도로 불렸다는 기록이 있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울릉도를 울도군이라 칭하고 울릉전도와 죽도·석도를 관할하도록 정하였는데, 석도는 '돌로 된 섬'이라는 뜻의 '돌섬'을 한자로 옮긴 것이다. 전라도 방언에서는 '돌'을 '독'이라 하여 전라도 남해안 출신의 울릉도 초기 이주민들은 '돌섬'을 '독섬'이라 불렀으며, '독섬'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독도'가 되었다고 한다. 독도가 행정지명으로 처음 언급된 것은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이 중앙정부에 올린 보고서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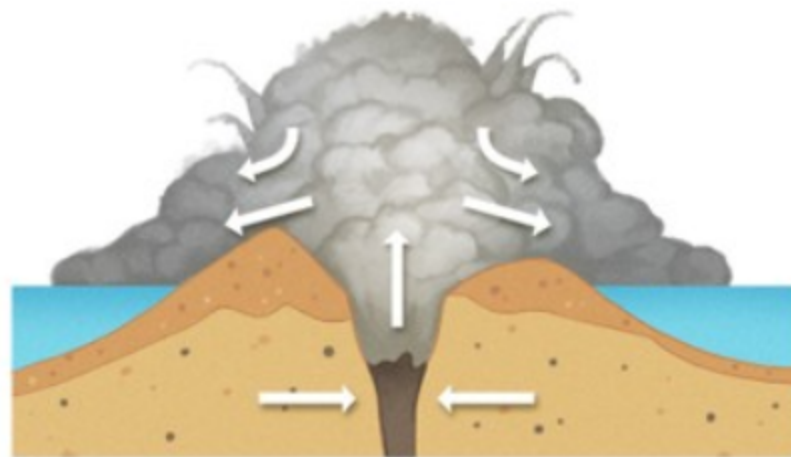
한편, 프랑스와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독도를 발견한 배의 이름을 따서 '리앙쿠르', '호네스트'로 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1905년에 일본은 일방적으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바꾸고 시마네현[島根縣]에 편입한 뒤 계속해서 근거없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한국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2005년 3월 16일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 가결하였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는 같은해 3월 17일 일반인에게 독도 방문을 전면 허용하고 대일 신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독도의 자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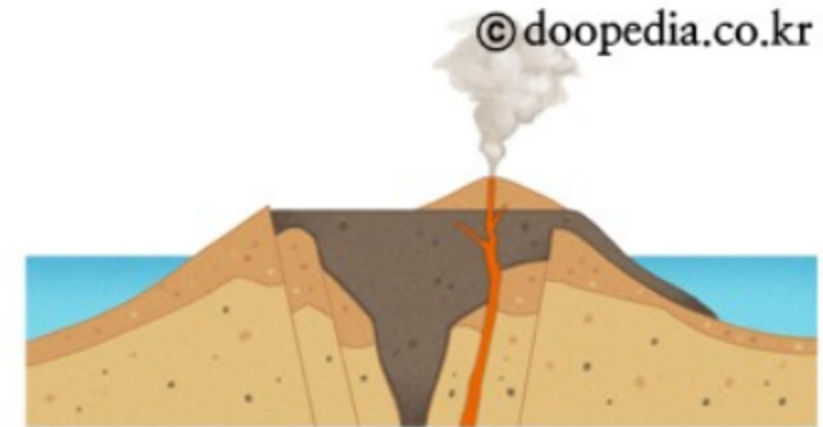


독도는 동도와 서도 2개의 주섬과 주변의 89개의 작은 부속 도서 및 암초들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생김새에 따라 물개바위, 독립문바위, 쏫대바위, 얼굴바위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독도의 자연



1 해저 약 2,000m에서 마그마 분출



2 달한 화구에서 다시 화산폭발



3 화산활동이 멈춘 뒤 파도에 의한 침식작용으로 사면이 붕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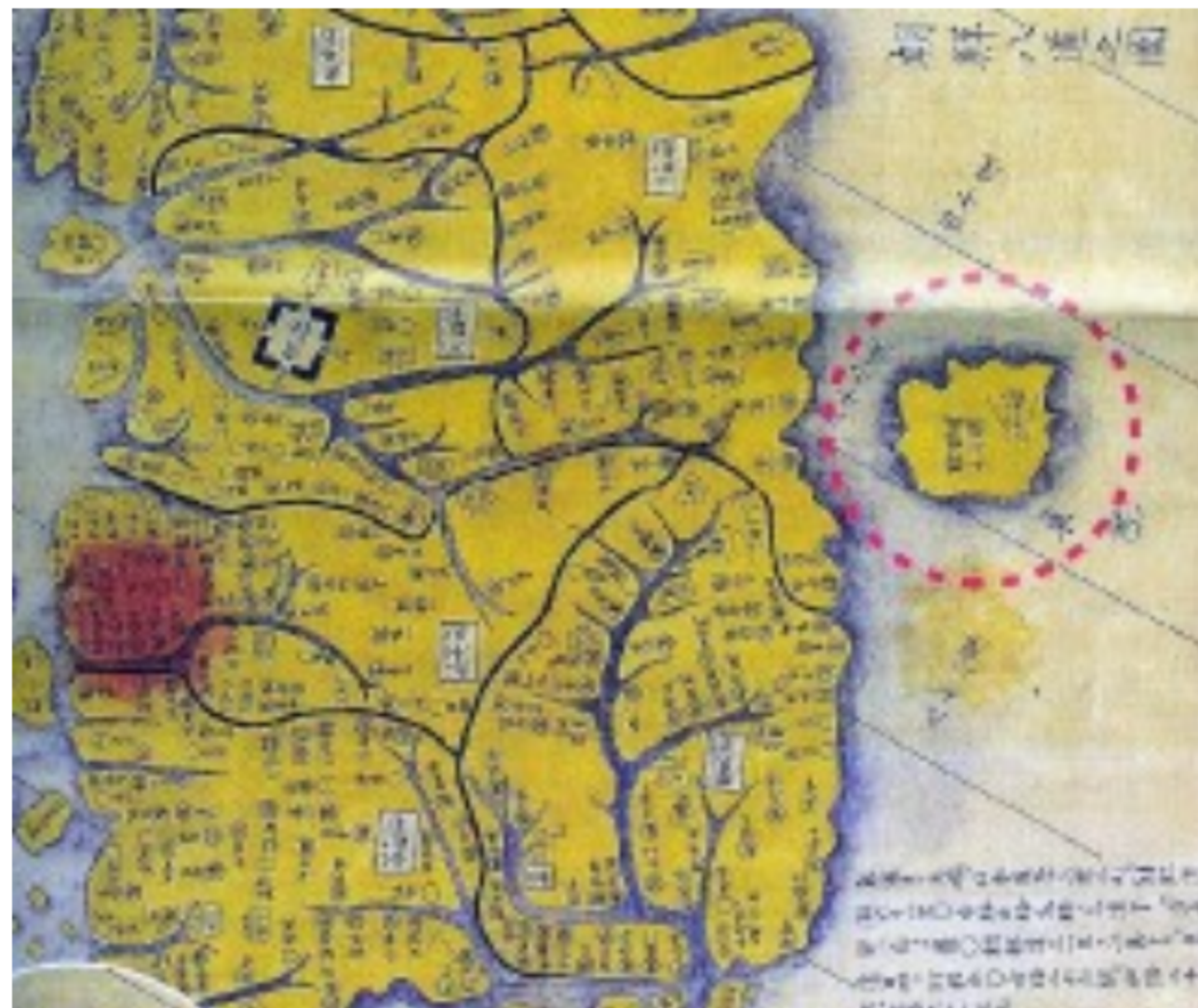
4 상부는 대부분 침식되고 해수면의 상승으로 동도와 서도로 분리

지질학적으로 보면 독도의 암석은 해저 약 2000m에서 솟은 용암이 굳어져 형성된 알칼리성 화산암으로, 신생대 3기 플라이오세 전기부터 후기 사이, 약 460만 년 전부터 250만 년 전 사이에 생성되었다. 종모양으로 된 동도와 서도 사이에는 형제굴, 동도의 천장굴 등을 비롯한 해식동굴이 있으며 해식대 및 해식절벽이 발달하였다.

독도의 날씨는 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로 여름철에 비해 겨울철에 강수량이 많다. 연중 85%가 흐리거나 눈비가 내려 습윤하다. 울릉도에서 씨앗이 날아와 살게 된 70~80종의 식물이 자라지만 강한 해풍과 부족한 토양 탓에 대부분 바위 틈에 자라는 식물들이었다. 지금은 소나무와 동백나무를 옮겨 심어 꽃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바다제비·슴새·괭이갈매기 등 이곳에 모여드는 희귀조를 보호하기 위해 1982년 11월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해조류 번식지로 지정하였다. 1973년 경비대에서 토끼를 방목하였으나 현재는 남아 있지 않으며 독도에서 서식하는 포유류는 독도 경비대가 키우고 있는 삽살개가 유일하다.

여기서 말하는 독도해조류란? : 바다제비·슴새·괭이갈매기!!!!!!

독도의 연혁



독도는 조선 전기부터 우산도 또는 삼봉도로 불리면서 울릉도와 함께 강원도 울진현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성종실록》 《숙종실록》 등의 문헌에도 그 사실이 남아 있다.

독도의 연혁

시기별 독도의 명칭



또한 조선 후기의 민간외교가 안용복은 1696년에 일본으로 하여금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하게 하였다. 섬 주변에 가제(강치)가 서식하는 데서 1794년경부터 가지도라고 불리다가《정조실록》, 1881년경부터 독도로 불리고 있으며 1906년 울릉군 군수 심흥택의 보고서에서 최초로 문헌에 나타난다.

1849년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에 의하여 독도의 존재가 유럽인들에게 알려졌다. 프랑스인들은 독도를 처음 발견한 배의 이름을 본 따 리앙쿠르암초라고 불렀다. 그후 1854년 러시아 군함이 독도를 발견하고 독도의 서도를 올리부차, 동도를 메넬라이라고 불렀으며 1855년에는 영국 군함 호네스트호에 의하여 측량되어 영국의 해도에 호네스트암초로 기재되었다.